

김영록 지사 “광주-영암 아우토티반 건설 적극 추진”

도민과의 대화...영암·삼호읍권 야간경관 지원 약속 노후산단 관련 도비 지원 비율 상향 방안도 검토키로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영암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티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암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영암 아우토티반이 건설되면 서남권 관광의 판이 바뀔다”며 “전남도와 영암군이 긴밀히 협력해 아우토티반 건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우승희 영암군수와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 신승철·손남일 전남도의원, 김종득 영암경찰서장, 윤강열 영암소방서장, 전남도 실·국장, 군민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우승희 군수는 이날 영암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암·삼호읍권 야간경

관 조명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도비 1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영암군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읍 소재지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올해는 이미 관련 사업이 마무리 됐다”며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군민들은 대불인조잔디 축구장 야간조명 설치 공사와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국가산단 보조사업 도비 부담비율 상향 등 현안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역 청년협업체 대표인 하준호씨는 “영산호 국민관광지의 지속적인 쇠퇴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오전 영암군민회관에서 영암군민과 함께하는 2023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를 막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중물 사업이 절실하다”며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설·프로그램 도

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은 “대불산단은 지난 8년간의 조선업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차츰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며 “대불산단에 대규모 투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

규·계속 사업에 대해 도비 부담 비율을 현재 3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전사·군의 노후산단을 지원하려고 하니 도·시·군의 예산매칭 비율을 3대7로 하고 있다”며 “도비 부담 비율을 70%까지 올린 걸 떠나 군 재정을 감안해 도 부담을 40-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지사는 도청 실·국장들에게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남도의 소금강 월출산과 호남의 젓줄 영산강을 품에 안은 영암은 유서 깊은 역사와 찬란한 문화, 맛깔난 음식 등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첨단 전략산업 기반도 착착 갖춰가고 있다”며 “영암 발전이 전남 서부권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암의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강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먹는물 공동시설인 증심사 입구, 대각사, 산장광장, 청풍습터, 산정, 용진산 등 6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 안전성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7회를 추가해 연 11회를 검사할 계획이다.

분석 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총 48개 항목이다.

검사 결과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시민과 공유한다. /박성강기자

광주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정기노선 출시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정기노선을 출시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행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쉬어브로(자연힐링+미식) ▲즐거브로(미식+MZ니즈결함) ▲느껴브로(가족+전시) 등 3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매주 토·일요일 운행한다. <사진>

자연힐링과 미식을 주제로 한 ‘쉬어브로’는 증심사와 포충사, 공연마루를 잇는 코스로 힐링기든유에서 족욕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을 더했다. ‘즐거브로’는 미식과 MZ세대 수요



를 결합해 만든 코스다. 양림동골목투어와 동명동 곰부러리에서 양조장 체험을 한 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 남도달밤야시장(미운 영매 뷰폴리)을 도는 코스다.

가족과 전시를 함께하는 ‘느껴브로’는 고려인문화관 ‘결’에서 미트로시카 쿠키 만들기 체험하고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지맵(GMAP), 전일빌딩, 뷰폴리로 구성됐다.

올해 시티투어버스는 화려한 색채(하트크)와 창문을 활용한 트리아트 디자인을 접목시켜 입체적이고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타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운행하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트리아트에 지역 체육선수

‘쉬어브로’·‘즐거브로’·‘느껴브로’ 등 3개 코스

17일-12월 8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행 예정

(안산, 김국영, 강다슬)가 달리는 모습을 텃임혀 함께 달리고 싶은 역동적인 모습을 더했다.

김성배 관광도시과장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했다”며 “광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하나의 예술작품(시티투어버스)을 타고 여행하며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최와 발맞춰 운행 중인 시티투어버스(순환형)는 7월9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

요일까지 1일 9회 1시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된다. 송정역을 기점으로 유스퀘어터미널, 상무지구 등 주요 거점지를 비롯해 비엔날레전시관, 파빌리온 전시관(양림동 일대)을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시티투어버스는 자유탑 승권 형식으로 운행되며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본인이 원하는 정차지에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광주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4천900원이며, 비엔날레 전시관 입장권 소지자는 약 20% 할인된 요금인 3천9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박성강기자

도, 6월의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밀’ 선정

전남도가 6월의 친환경 농산물로 ‘유기농 밀’을 선정했다.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에서 생산된 유기농 밀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는 건강한 식재료다.

밀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증대하고 산화를 억제하는 등 노화 방지 효능이

뛰어나다. 항암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1,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이섬유 또한 다량 함유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함평 대동면 월송리에서 유기농으로 밀을 생산하는 오관수(64) 명인이 지난해 밀 분야 전남도 유

기농 명인 제30호에 선정됐다.

오관수 명인은 월송마을 주민들과 함께 1993년 오리농법으로 친환경 벼농사를 시작해 2005년 우렁이농법을 도입해 논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2008년에는 체계적 친환경농업을 위해 나비골월송친환경농업인을 설립하고 종자 선택부터 수확, 수매 과정까지 관리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마을 법인 조직화에도 앞장서 왔다.

망심을 기르기 위해 벼짚 환원사업을 추진했고 유산균, 유향 등 유기농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해 수량 증대와 병해충 방제 효과 증진으로 고품질 생산에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70ha 규모의 나비골월송 친환경 밀 재배단지에서 200t을 생산해 3억1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생산된 밀은 아이롭생협, 우리농촌살리기공

동네네트워크 등에 전량 계약재배로 출하했다. 올해는 300t이 납품될 예정이다.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은 “안정적 판로가 보장되는 계약재배가 농업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유기농 밀의 재배 면적을 확대해 건강한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창조클럽 아카데미 8기 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8기 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